

귀경객 너도나도 “안전한 사회, 평범한 일상 회복됐으면”

긴 명절 연휴 귀경 현장

설 연휴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광주의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지는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시민들은 고물가, 경기 침체뿐 아니라 계엄 정국,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혼란스러웠던 해를 뒤로 하고 평안한 한 해를 맞이하기를 소원했다.

30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은 아쉬운 마음을 안고 돌아가는 귀경객들로 북적였다.

서울에서 본가인 광주를 찾은 박지훈(27)씨는 “충주와 목포 등지에 흩어져 있는 동생들과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해서 의미있었다”며 “다시 서울로 올라가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은 듯하다. 다사다난한 연말연초지만 새해에는 희망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소원했다.

광주송정역·버스터미널 등 가족 배웅받는 귀경 인파로 ‘복직’ “정치·경제인 본분 다해 불경기·탄핵 정국 하루빨리 해소되길”

서울에서 본가인 광주를 찾은 신선진(여·25)씨도 할머니댁을 찾아 가족들과 설날 분위기를 만끽했지만, 연휴 이후 다가올 일상에서도 평온함을 기원했다.

신씨는 “2일에 서울 흥대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어 기타를 갖고와서 설날 연휴 내내 연습했다. 전자 음악 밴드를 만드는게 목표인데, 올해는 좀더 안정된 사회가 만들어져서 마음껏 즐겁게 공연할 수 있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긴 연휴를 맞아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현규(18)군은 “고3 수험생 신분이 되기 전 친구들과 목포여행을 가려고 터미널에 왔다”

며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는데 새해에는 친구들과 마음편하게, 안전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광주시 광산구 광주송정역 또한 귀경 길에 오른 시민들이 역 바깥까지 줄을 서면서 장사진을 이뤘다.

한 가족은 딸을 보내기 아쉬워하며 열차가 출발하기 직전까지 손을 잡고 있었다. 부모는 최근 제주항공 참사로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남았는지 딸에게 연신 “조심히 가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만난 송정역에서 만난 시민들은 한 마음으로 새해 가족에게 평안한 일상이 이어지길 바랐다.

90대 어머니 손해심씨를 모시고 충남 부여행 열차에 오른 60대 조흥영씨는 “가족끼리 오랜만에 제주도를 갔는데, 어머니께서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비행기 이용을 꺼려하셔서 설득까지도 오래 걸렸다. 오죽 충격을 받으셨으면 그러셨을까라며 “올해는 큰 사고 없이 행복한 한 해를 보내고, 다음 명절에도 같이 모여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 할머니 댁에 들렀다 서울행 열차를 탄 이시은(여·13)양은 “연휴가 길어서 강아지까지 데리고 광주를 왔다. 연휴가 끝나면 바로 학원에 가야하는데 몸이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연휴 기간 동안 어른들 사이에서 계엄, 여객기 참사 등 이야기가 끊임없이 오가 걱정이 됐다. 올해에는 안타까운 사고 없이, 우리 나라가 행복했으면 좋겠

다”고 했다.

계엄 이후 불안정한 정국과 불경기가 해소되길 바라는 이들도 있었다.

연휴 동안 작은 아들을 만나러 제주도를 갔다는 김정희(81)씨는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 또한 안정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시민들은 정의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 뿐”이라며 “새해에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등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각기 맡은 일을 잘 해서 희망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연휴 기간인 지난 25일부터 30일 낮 12시까지 총 308만여명(일 평균 51만여명)이 광주를 오간 것으로 집계했다. 귀성객 146만여명, 귀경객 161만여명 등이었다. 총 귀성·귀경객 수는 지난해 추석(총 340만여명·일평균 68만여명)에 비해 9.1% 감소했다.

/유연재 기자 yyou@kwangju.co.kr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민주가족 합동세배 광주전남민주화동동지회 등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원로 등이 30일 오후 광주시 동구 광주YMCA 무진관에서 열린 '2025 을사년 민주가족 합동세배' 행사에서 탄핵을 넘어 7공화국 시대를 열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일제 강제동원 나주 출신 이춘식 할아버지 별세

일제와 전범기업에 강제동원돼 노역했던 이춘식(사진) 할아버지가 별세했다. 향년 102세.

민족문제연구소는 30일 “일본에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이어왔던 이춘식 할아버지가 지난 27일 오전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1924년 나주에서 태어난 이 할아버지는 일본에서 기술을 배우고 돈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17세에 근로보국대(일제가 조선인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만든 조직)에 지원했다.

하지만 신일본제철의 가마이시 제철소에 투입된 이 할아버지는 하루종일 팔팔 끓는 용광로에서 나온 철을 가마에 나르는 일에 동원됐다. 작업 도중 복부 큰 크게 다쳐 큰 흉터가 남았다. 일본 헌병들은 주기적으로 찾아와 “게으름을 피운다”며 발길질을 했다.

3년여를 일했지만 “나라에서 저축해준다”는 말만 들었을 뿐 손에 쥔 임금은 단 한 푼도 없었다.



1945년 일제 패망 후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제철소에 갔을 때는 폭격으로 공장이 폐허가 된 상태였다.

임금을 포기한 채 살았던 이 할아버지는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권리가 소멸하지 않았다며 2005년

동료 3명과 함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3년여동안 지리한 소송전 끝에 2018년 대법원의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법정 투쟁을 함께했던 동료 2명이 이미 곁을 떠난 후였다.

힘겹게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일본기업들은 배상을 거부했고,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제3차 변제안을 제시했다. 당시 이 할아버지는 “대통령이 국민 눈치는 안 보고 일본 눈치만 본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장혜원 기자 hey1@

“민원 있습니다” 광주, 전국 3번째로 많아

1만명당 3299건...1월 3만1283건 불법주차·경찰서·지자체 등 상위

광주시민들의 지난해 공공기관 민원접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된 2024년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는 인구 1만명당 민원 3299건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

1만명당 민원 건수는 대전이 39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이 3345건, 광주가 뒤를 이었다. 전북이 1714건으로 가장 낮았고 강원(1765건), 제주

(1787건) 순이었으며 전남은 1842건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낮게 집계됐다.

올해 1월 한달간 광주에서는 3만 1283건의 민원이 집계됐다. 설 연휴기간(1월 25일~30일)에 만 534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광주지역 민원 키워드 상위 5개 키워드 모두 ‘불법주차’ 등 주정차에 관련됐다. 이외 ‘친환경차 충전구역’, ‘경찰서’, ‘지자체’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민원 수는 북구가 130건, 서구가 100건, 광산구가 80건, 남구가 30건, 동구가 14건 순이었다.

전남에서는 1월 한달간 2만 3096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이중 설 연휴 기간 민원은 16%(3863건)를 차지했다.

전남 키워드 역시 ‘불법주차’, ‘자동차’, ‘불법 자동차 신고’, ‘주정차’,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차’ 등 주차 키워드가 1위부터 5위를 차지했다. 민원건수는 목포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 51건, 여수 42건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장애인 전용 구역 등 ‘불법 주정차’가 가장 많았고 ‘불법 광고물’, ‘재개발’, ‘교통환경’, ‘교육’ 순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또 10대는 ‘학교·물품 구매’, 20대는 ‘병역’, ‘학교’, 30~40대는 ‘아파트’, ‘주거환경’, 50대 이상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교육청, 초등생 기초학력 증진 전담교사제 확대

교사·학부모 컨설팅·상담도

광주교육청이 초등학생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올해 전담교사제를 확대 운영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한다.

30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기초학력전담교사 운영학교를 지난해 30개교에서 올해 44개교로 확대하고, 제도 내실화를 위한 운영 길라잡이 개발, 기초학력지원센터 연계 역량도 높인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한글문해력, 기초수리력 학습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 내에 ‘예방-진단-지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해력·수리력 집중 지도 등 학생들의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역할을 맡고 있다.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던 기초학력지원센터는 전문기관인 광주교육대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난독증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전문기관·인력을 연계한 사업도 펼친다.

지역 내 소아정신건강의학과 5곳, 언어치료기관 41곳, 임상심리사, 학습코칭원인 등을 활용해 심층 진단과 치료로 학습 부진 원인에 적합한 개별 학생 맞춤형 지원을 운영한다.

올해는 “더깊이진단서비스”를 신설해 교사·학부모에게 교육방향 컨설팅과 교육방법 상담 등도 제공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